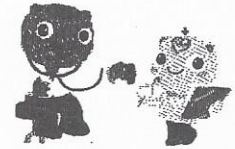




이달의 감염병 소식



□ 쯤쯤가무시증

쯤쯤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. 털진드기 유충은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므로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 활동 시기인 9~11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대부분의 환자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.

증상

- 발열, 오한, 두통 등이 있다가 근육통, 기침, 구통, 복통 등 인후염이 동반되며 발진과 가피가 나타남 (가피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음)
- 가피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복부, 겨드랑이, 가슴, 종아리, 사타구니 등에서 많이 발견
- 잠복기는 10일 이내

전파경로

- 털진드기가 서식하는 수풀 환경에 노출
- 농림 축산작업 활동이나 텃밭 작업에 의한 노출
- 쯤쯤가무시증 발생을 높이는 위험요인
 - 직업과 관계없이 밭농사, 과수원, 목축업 등 농사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우
 - 풀밭 위에 누워서 휴식, 풀밭에서 대·소변을 보는 경우
 - 상의 탈의 혹은 반팔로 작업 등을 한 경우

예방

- 야외활동 전
 -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복장 입기
 -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- 야외활동 중
 -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,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 - 기피제의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
- 야외활동 후
 -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
 - 샤워하면서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
 -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기

치료

-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용이하게 회복
-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움